



시민속으로 2017 / 8월 3주차

■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14일(月) : 국제 독립운동 영화제 / 08월 15일(火) : 광복절 학술대회

■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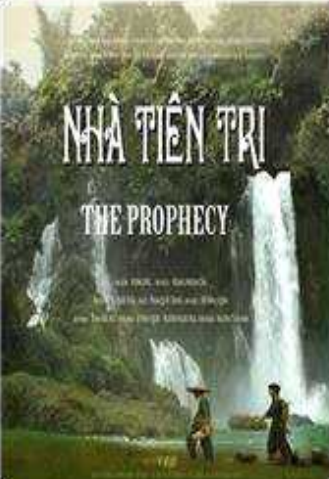
○ **국제 독립운동 영화제 및 광복절 학술대회 안내**

- 날짜 : 2017년 08월 14일(월) ~ 08월 15일(화) /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 8월 14일(월) "독립운동 영화제" | 8월 15일(화) "광복절 학술대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13:00 - 영화제 오프닝 - 영화해설영상 - 미안마 영화 <나바> • 13:00~13:30 - 휴식 • 13:30~15:00 -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 15:00~15:20 - 휴식 • 15:20~17:10 - 영화해설영상 - 베트남 영화 <예언> • 17:10~18:00 - 베트남 감독 "부옹 덕"과 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14:30 - 개회식/환영사/축사 • 14:30~16:30 - 전북지역 의병의 인적교류 - 습재 최재학을 중심으로(발표 : 김건우 / 토론 : 홍영기) - 전북지역 항일 유림의 인적교류 - 염재 조희제를 중심으로(발표 : 변주승 / 토론 : 이항배) • 16:30~16:40 - 휴식 • 16:40~18:40 - 전북지역 민족주의자의 인적교류 - 장현식을 중심으로(발표 : 윤상원 / 토론 : 유시현) - 전북지역 사회주의자의 인적교류 - 신간회와 김철수를 중심으로(발표 : 유효정 / 토론 : 최규진) |

※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상영작>

| 순 | 구분 | 내용 |
|---|---|---|
| 1 |  | <p style="text-align: center;">미얀마 영화 <나바> 1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作, 상영시간 120분 - 일제 치하 미얀마 농민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화 - 미얀마 농민들의 고통을 대표해서 일제에 맞선 나바. 나바의 활동을 통해 일제치하 미얀마 농민들이 실상을 잘 볼 수 있는 영화. 미얀마 최고의 배우 '쩌두'가 배우 겸 제작자로 참여. - 미얀마 현지에서 흥행 성공. |
| 2 |  |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13: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作, 상영시간 82분 - 손양원 목사(1902 ~ 1950)의 일대기 - 193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여수의 나병환자 요양원인 애양원의 교회에서 봉사하였으며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1940년 체포되어, 광복이 되어서야 출옥. 출옥 후 1946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6.25 전쟁 중 사망 |
| 3 |  | <p style="text-align: center;">베트남 영화 <The Prophecy> 1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作, 상영시간 109분 - 1947 ~ 1950년까지 프랑스 군대를 상대로 한 베트남 독립 운동 영화 - 2017년 다카 국제영화제 초청작 |

S Y M P O S I U M

학 술 대 회

인적 교류를 통해 본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사회관계망 구성

2017

8·15 화요일



14:00 시



장소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문의

063-286-3005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문화학연구소**

후 원  **국가보훈처**



일송 장현식



염재수의재



심재현의재



서훈 김철구

全北地域獨立運動家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 행사 안내

- 엇그제 개원 10주년 행사를 치룬 것 같건만 어느새 개원 11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이 문을 연지 정확히 11년이 되는 오는 **"9월 2일(土)~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북 완주 초남이 성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해 시설을 증축한 초남

이 성지를 찾아 사업을 마친 하태진 신부의 헌신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포도수확 체험 및 인문강좌, 애장품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이 함께하여 경향각지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행사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현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전화

(063-286-3005), 최우영 사무국장(010-6275-0409), 이동학 행정실장(010-7137-6418)에게 연락주시

면 됩니다.

○ 회원의 날 및 개원 11주년 행사 일정표

| 날짜 | 시간 | 내용 | 날짜 | 시간 | 내용 |
|-----------------|-----------------|---------------------------------|-----------------|-----------------|----------|
| 9월 2일 (土) | 14:00 ~14:30 | · 준비 및 등록 (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 9월 4일 (日) | 08:00 ~09:00 | · 아침식사 |
| | 14:30 ~15:00 | · 집합 및 숙소배정 · 보물찾기 시작(19시까지) | | 09:00 ~10:00 | · 순례길 답사 |
| | 15:00 ~17:00 | · 회원의 날 공동체 행사 | | 10:00 ~11:00 | · 경품 추첨 |
| | 17:00 ~18:00 | · 개원 10주년 기념식 | | 11:00 ~ | · 귀가 |
| | 18:00 ~19:00 | · 저녁식사 | | | |
| | 19:00 ~20:00 | · 애장품 경매 | | | |
| | 20:00 ~21:00 | · 뒤풀이 - 풍등날리기 - 불꽃놀이 | | | |
| | 21:00 ~ | · 자유시간 | | | |

※ 행사장소 : 초남이 성지(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4-1)

※ 일정은 날씨나 현지상황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맹호연의 자는 역시 호연(浩然)으로, 지금의 호북성(湖北省)에 해당하는 양주(襄州)의 양(襄陽)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맹양양(孟襄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양양의 남쪽에 장원이 있어 그의 가족이 이곳에 살았다. 그에게는 세연(洗然)이란 형에다가 형(馨)과 악(諤)이란 두 동생이 있었다.

■ 작 품

田園作(전원작)

전원에서

| | |
|--------------|---------------------------|
| 弊廬隔塵喧(폐려격진훤) | 낡은 오두막 시끄러운 속세와 떨어졌으니 |
| 惟先養恬素(유선양념소) | 생각건대 선조께서 편안한 소박함을 기르시고자. |
| 卜鄰近三徑(복린근삼경) | 이웃을 가렸기에 은자의 집 가까이 |
| 植果盈千樹(식과영천수) | 과일나무를 심어 천 그루 채우셨구려. |
| 粵余任推遷(월여임추천) | 아, 나는 세상의 추이에 따라 |
| 三十猶未遇(삼십유미우) | 서른의 나이에도 아직 알아주는 이 만나지 못해 |
| 書劍時將晚(서검시장만) | 문과 무로 공 세울 날 장차 늦어만 가는데 |
| 丘園日已暮(구원일이모) | 원림은 날마나 부질없이 저무나니, |
| 晨興自多懷(신흥자다회) | 새벽부터 잠이 깨어 언제나 생각 많고 |
| 晝坐常寡悟(주좌상과오) | 한낮에 정좌해도 깨달음은 늘 적지만, |
| 衝天羨鴻鵠(충천선홍고) | 하늘을 찌르는 기러기와 고니를 부러워하며 |
| 爭食羞雞鶩(쟁식수계목) | 모이나 다투는 닭과 오리 부끄럽게 여기면서 |
| 望斷金馬門(망단금마문) | 황제 계신 금마문 바라보지 않기에 |
| 勞歌采樵路(노가변초로) | 나무하러 다니는 길에서 힘든 노래 부르는데, |
| 鄉曲無知己(향곡무지기) | 궁벽한 시골이라 알아주는 사람없고 |
| 朝端乏親故(조단핍친고) | 조정 안에도 친구조차 드무니, |
| 誰能爲揚雄(수능위양웅) | 누구런가? 양웅 같은 나를 위해 |
| 一薦甘泉賦(일천감천부) | 감천부 한번이라도 추천해줄 사람은 |

■ 감 상

맹호연의 일생은 크게 은일(隱逸)과 만유(漫遊)로 이어진다. 그는 20세 전후부터 녹문산(鹿門山)을 노닐었는데, 23살 되던 711년부터 친구 장자용(張子容)과 본격적으로 녹문산 남원(南園)에서 은거를 시작했다. 녹문산은 본래 동한(東漢) 시대의 저명한 은자 방덕공(龐德公)의 처소로 이름 높던 곳이다. 29살에는 동정호(洞庭湖)와 삼상(三湘)을 유람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718년에는 서른의 나이가 넘었는데도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담아 「전원작(田園作)」을 지었다.

■ 역사속의 오늘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1976년 8월 18일

1976년 당시 판문점은 별다른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었는데, 한국군 측 3초소는 조선인민군 육군 측 초소 3개소에 포위당한 지점에서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5초소 측에서 3초소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는데, 미루나무가 5초소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8월 6일 한국인 노동자 4명과 UN군 4명이 미루나무 절단을 시도했는데 이때 북한군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8월 18일 절단이 아닌 가지치기만 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0시 30분 노동자 3명, 장교 3명, 경비병 7명을 동원하여 가지치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때 북한군 군관 2명과 하전사 8명이 나타나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에 UN군은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중이라 설명했고 이때 현장에 있던 북한군도 수궁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지를 잘 치는 법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가지치기 작업은 매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10시 47분에서 50분 사이 갑자기 북한군의 박철 중위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나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철 중위는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근무가 3일밖에 남지 않았던 보니파스 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속행하도록 지시했고, 11시 30분에는 북한군 경비병의 숫자가 30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철 중위는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나 보니파스 대위는 재차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박철 중위가 소매를 걷고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호주머니에 넣으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북한군 경비병들은 일제히 소매를 걷었고 박철 중위는 즉각 “죽여!”라고 소리 지르며 보니파스 대위를 걷어차 폭행을 가했다.

보니파스 대위가 구타를 당해 쓰러진 후 인민군 한 명이 작업자들에게서 빼앗은 도끼를 그 뒷머리를 향해 휘두른다. 보니파스 대위 절명. 인솔 장교 중의 하나인 바레트는 필사적으로 UN군 초소 쪽으로 도망갔지만 이내 덜미가 잡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후 후송 중 사망한다. 불과 3분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근처에서 무비 카메라를 돌리고 있던 미군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월남 해방 이후 패전국이 된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략한 수치심에 떨고 있었다. 가뜩이나 그렇게 절치부심하는 와중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그것도 장교가 두 명씩이나 도끼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미국을 뒤흔들었다. UN군 사령관 미 육군대장 리처드 스틸웰은 휴가차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사건 보고를 받자마자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해 급히 복귀했다. 휴전 이후 최초로 한국에는 '데프콘 3', 이후 데프콘 2(전쟁 직전 상황)까지 발동됐다. "우리도 다쳤다."고 북한이 우겼고 "미리 조작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장면을 카메라가 상세히 찍고 있었겠느냐"고도 항변을 해 봤지만 어쨌건 도끼를 휘두른 건 빼도 박도 못할 북한 군인이었다.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즉각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시간으로 8월 18일 오후 3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주재로 도널드 럼스펠드(아버지 부시 때도 국방장관을 지낸 이) 국방장관의 대리인 국방차관 윌리엄 클레멘츠, 합참의장인 미 해군대장 제임스 헬러웨이 제독, 대통령 안보 부보좌관 윌리엄 하이랜드 등이 참여한 워싱턴 특별대책단 회의가 소집되었다. 키신저는 현장 사진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고 사진에서 북한군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군을 권총으로 쏘죽였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CIA에서는 이 도발이 계획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참석자들도 동의했다.

북한도 전시 체제를 발동했고 평양 시민 수십 만명이 소개 내지는 지방으로 재배치됐다. 그러나 미국의 무력은 압도적이었다. 항공모함 세 척이 한반도로 접근했고 광에서 날아온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또 다른 전면전을 감당하기에는 월남전의 상처가 너무 컸다. 그들이 우회적으로 선택한 전술적 목표는 문제의 미루나무였다. 일단 여차 하면 때려 버린다는 시위를 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나무를 베어내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여차하면 이 작전의 산통을 깨겠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군이였다. 나무를 자르면서 혹시나 모를 확산을 경계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경계 병력에게 '몽둥이'를 들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한국군 특전사 부대원들은 카투사로 위장, M16 소총, 수류탄, 크레모아, M79 유탄발사기 등을 삽, 곡괭이 등 작업도구 밑에 감추는 식으로 트럭에 탑승하여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 도끼와 몽둥이를 가지고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끝내 침묵한다. 근처에서 그를 지켜보는 경비병들이 있었지만 "도발하지도 말고 도발에 대응하지도 말라."는 상부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판문점 경비초소에는 사건 이전과 같은 애매한 경계 대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확실한 경계가 세워졌다. 경계 밖에 있던 양측 초소는 모두 철거되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벌목된 미루나무의 일부는 JSA 안보 견학관에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미루나무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미루나무 둥치 둘레 만큼의 둥근 시멘트 위에 사건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북한은 이 사건 후 무려 1년 반 동안 전시태세를 풀지 않았고 남한의 '총력안보' 태세는 반대자들을 질식시키고 겨울 공화국의 독기를 끌어올렸다. 전쟁의 위기는 이 말고도 많았지만 전쟁의 문턱에 다다랐던 사례로 1976년 8월 18일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날 특전사 결사대원 가운데 문재인이라는 이름의 상병이 있었다. 41년 뒤 오늘, 한국의 대통령이 된 그는 당시 북한 주석이었던 김일성의 손자가 정권을 쥐고 대치 국면에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전쟁불사를 외치며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 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미국 대통령과 달리 그날 특공대로 투입되었던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장 완벽한 전쟁도 가장 모자란 평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진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길 바란다.